

하나됨과 나눔

##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대강절(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강절 기간 매 주일에 드리는 가정예배 안내서를 사용하십시오.)
- 다음 주일 예배후에 연합공동체별로 실행위원회 모이겠습니다.
- 멩쟁이학교 2학기 종강발표회가 12월 3일(토) 저녁 7시에 있습니다.

###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 감사 )  
정동은 권사 가정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로나니어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연합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지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48 호  
2022년 11월 27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로나니어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은  
사  
랑  
방

주인이 거히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찾기

올해 11월 4일 경북 봉화군에서 매물사고를 당한 광부 두 명이 지하 190m에 갇혀 있다가 221시간 만에 살아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약 열흘간 고립되어 살아 돌아 온 것입니다. 이 둘은 자신들이 발견될 때까지 100제곱미터의 원형의 공간에서 바람을 막기 위해 주위의 마른 나무와 비닐로 천막을 치고 불을 피워서 추위를 견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일 작업할 때 가져간 커피 믹스와 물을 식량삼아 조금씩 계획적으로 나누며 견뎠으며 마지막에는 물이 떨어져 암벽에서 떨어지는 물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 둘은 발견 당시에 서로 어깨를 맞대고 체온을 유지했다고 119 구조팀장이 말했습니다.

고립 후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삶에 대한 건강한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건강과 기질 같은 현상이 영향을 줄 수 도 있으나 가장 큰 이유가 힘겨운 순간에도 살겠다는 의지를 포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0년 칠레 산호세 구리 광산 700m에 갇혔던 33명의 광부들도 서로 격려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물과 소량의 비상식량을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69일을 버텨 구조되었습니다. 1982년 태백 탄광의 광부4명도 14일간 갭 안에서 구조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갭목 껍질과 서로의 체온을 유지해 생존했습니다.

[박태근 동아닷컴 2022-11-05]

학생들과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함께 보았습니다. 부제는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 존엄성의 승리입니다. 1905년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태어난 작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3년 동안 다카우와 다른 강제 수용소가 있는 아우슈비츠에서 보내면서 이때의 경험으로 1946년에 출판한 책입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통해 로고테라피라는 심리 치료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강제 수용소를 경험한 첫 번째 징후는 충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곧 무감각단계인 정신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를 접하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풀려나면서 원하던 자유를 되찾았지만 그동안 놀린 감정을 때문에 기쁨을

## 선교와 섬김

표현하지 못하고 비현실처럼 맞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를 만들어 줍니다.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광부들을 생존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그 의미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찾아서 실천했습니다. 강제수용소에서 경험했던 빅터 프랭클도 의미를 찾았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이겨 냈습니다.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올해에는 어떠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될까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자신이 바라고 있는 것, 모든 삶의 정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매해 다가오는 대강절 기간이지만 매번 맞이하는 그 상황은 다릅니다. 개인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의미를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또 지금의 사랑방공동체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로 비춰지고 기다리고 있는지도 찾아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 현재 국가와 세계의 정세에 어떠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예수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면서 기다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세상과 맞서는 힘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같지 않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고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낮은 자리에 누추한 곳으로 오셔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을 보이시고 함께 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실천할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생활공동체 디아코니아사랑방 최기찬 전도사

## 한주간에 말씀

“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 창세기 2장 7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68, 260, 442, (67)

기도 :

성경 : 사무엘상 4장

제목 :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1. 내용: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배하여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다. (What)

<문단구분>

1절~5절 언약궤를 진으로 가져오다

6절~11절 블레셋이 전투에서 이기다

12절~18절 엘리가 전쟁터에서 온 소식을 듣고 급사하다

19절~22절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하다

2. 의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가 잘못되었다. (Why)

1) 언약궤가 무조건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든 거룩의  
근원이시다.

2) 제사장 가정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결국 이스라엘 전  
체에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3. 적용: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How)

1) 우리 안에 주술적이며 미신적인 신앙을 제거하자.

2)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하게 여기자.

## 저는 변함없이 혼련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방공동체와 인연을 맺어 주신지도 2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운계를 기존의 공교육 환경에서가 아니라 자연과 어울리며 자유롭게 키우고 싶었던 부모의 욕심과 지독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게 된 뿌리 기학교 덕분에 그 인연이 시작되었음에, 인생의 반을 사랑방과 함께할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라떼는 이랬는데...”라며 너스레를 떨 수 있지 않을까요?^^

공동체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으니 가장 큰 장점이 언제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매일 밤마다 교육관이나 자연예배당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는 눈물을 펄펄 흘리며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드렸고, 현실의 힘든 무개를 버티고 버티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했고, 그저 침묵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으며, 기도의 응답으로 기쁨의 찬양을 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에 작은 의류 유통 회사를 다니다가 1년 6개월 만에 의류 딜러를 시작하였습니다. 초반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붓물 터지듯 소개가 들어와, 신규로 거래처를 뚫으려 다니기도 다 소개받은 곳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바빴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며 2021년 가을 시즌부터 2022년 여름 시즌까지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상황이 조금씩 해결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옷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가을, 겨울 시즌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며 벌써 시즌 마감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아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렸고 '이번 비수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하나님께 계속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제 동생이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일이 있는데 할 수 있나?'는 연락이 오고, 다른 지인은 '야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몇 년간 계속할 수 있는 일이다'라며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내의 기도에도 감사했습니다. 반백년을 넘게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증거 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꾸준한 기도만이 살길이라는 진리를 온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혼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보 글에 제가 계속 혼련 중이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혼련 중입니다.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사람, 숙제를 풀어야 하는 피조물"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허철영 강훈자 / 봉헌위원 : 나송주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 공동기도문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숙제를 풀어주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겸손히 기다리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 사람, 숙제를 풀어야 하는 피조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본문의 앞 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되 복과 혜택을 누리도록 분명한 목적을 두고 지으셨습니다. 본문은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2:7> 말씀하시며 지으신 과정과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동산에 쫓겨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풀어야 할 세 가지 숙제. 본문은 사람이 본래의 생명과 삶을 회복 위해서 풀어야 할 숙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숙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7a>는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숙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7b> 말씀으로, 육체적 삶의 약함을 극복할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숙제는,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는<7c> 말씀으로, 생명을 생명되게 하고 내적 욕구들을 채울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현대인은 과학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인해 착각과 교만, 그리고 위선에 빠져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본질적인 질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육체적 질병, 정신적 이상, 심리적 불안으로 고통당하며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물질의 풍요속에 세속적인 즐거움에 만족하는 것 같으나, 내적으로는 여전히 갈급하고, 외롭고, 공허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숙제를 풀어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겸손히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계만 목사 / 기도 : 이어람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원주로 1박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앞두고 친구와 함께 지낼 시간들에 대한 기대와 부모님 보고 싶어 어찌나 밤에 잠자리에 쉬를 하면 어찌나 하는 걱정이 뒤섞여 복잡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첫날 뮤지엄 산에서 다양한 미술작품들 특히 빛을 이용한 작품들을 감상하고 종이의 역사와 종이를 활용한 물건들도 보고 실크스크린 체험도 하며 오후 내내 머물렀습니다. 보고보고 또 보는 뮤지엄 일정인데 꾸러기들은 내내 조용히 설명도 잘 듣고 찬찬히 보며 마음에 드는 작품을 이야기 합니다. 숙소에서 불빛축제를 보았습니다. 깜깜한 숲길과 잔디밭에 불빛으로 연출한 다양한 장면을 만나며 산책을 했습니다. 점심 먹고부터 계속 걷고 뛰어놀고 또 걸어서 밤에는 다리가 아팠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드리십시오'라는 말씀을 외우며 출발해서인지 꾸러기들 체력이 봄보다 확실히 좋아져서인지 힘들다고 크게 불평하지 않고 잘 놀다가 잘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확실히 짧아졌고 부모님이 보고 싶다는 말도 제법 의젓하게 합니다. 둘째 날은 회전목마랑 바이킹을 타보고 미니 포그레인 운전도 해보았습니다. 드디어 스스로 발을 굴러 뽕뽕 그네를 타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원통형 미끄럼 속으로 겁 없이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소금산 경치를 보며 레일바이크도 타보았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정성스레 챙겨 보내주셔서 여행 내내 풍성하고 다양한 먹을거리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 어린이학교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쁘고 부지런하게 지내왔던 2학기도 이제 점점 정리를 해야 하는 시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 배움과 가르침

어린이학교는 지난주에 올 해의 마지막 여행인 학년말여행을 충북 청주로 다녀왔습니다. 충청도 특유의 잔잔하고 평온함도 느끼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학년끼리 함께 지내며 자라는 1년의 시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날은 청주의 가로수길과 운보 김기창 화백의 운보의 집과 운보미술관을 관람하였습니다. 특히 김기창 화백께서 동양화로 그리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며 어린이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둘째 날은 국립현대미술관과 문화제조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숙소로 돌아와 대한민국 vs 우루과이 월드컵 경기를 응원하며 힘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은 청남대를 다녀오며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올라오는 길이 너무 많이 막혀서 좀 힘들었지만 4시간이 넘도록 차에서 노래도 부르고 서로 퀴즈도 내고 끝말잇기도 하고 쉬지 않고 끝없이 노는 어린이들을 보니 정말 어디서도 잘~ 노는구나 라는 생각에 고맙기도 했습니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니 춥다고 웅크리지 않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학기를 더욱 알찬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겠습니다. ^^

< 교사 : 정다운 >

### 멋쟁이학교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추운 날씨에 목이 칼칼해지고 콧물이 흐르는 멋쟁이들이 생겼고 종강 발표회 준비와 학기 마무리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웃으며 활기차게 생활한 멋쟁이들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5주 동안 진행된 공동심화학습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파헤치자' 수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멋쟁이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열린 수업 시간에는 학기말 자율 평가서를 작성하며 한 학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평가하며 되돌아보았습니다. 또 특별히 목요일 저녁에는 월드컵 축구경기를 함께 보며 맛있는 간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6학년이 일본에서의 졸업여행을 마치고 지난 금요일에 귀국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사 : 박예나 >

## 농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자연 예배당. 화단 양지바른 곳에 튜울립 구근을 심었습니다.

내년 봄에 예쁜 꽃을 보려면 늦가를 저녁이 서늘해질 때 기온이 최소 16°C 정도일 때 알뿌리를 심어주면 겨울 동안 흙 속에서 성장하고 봄에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봄이면 노란 수선화와 함께 피라에 가득 피어날 아름다운 튜울립 꽃을 기대해봅니다.

저는 올해 농사에 대해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포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4월에 입학하여 11월에 졸업하였습니다.

올봄 시역공동체에서 반려 식물을 키우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원예 특작과를 지망했는데, 채소, 과수 재배기술 등 농사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농사 경험도 없고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단어들에 졸음만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미있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부한 것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식물을 키우는데 기본은 토양, 햇빛, 물이며 식물은 독립 영양 생물로서 필요한 영양분을 스스로 지니고 있어 살아갈 수 있지만, 사람은 종속 영양생물로서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계는 지금 이상기온과 같은 기후변화로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고 앞으로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나라 농촌도 고품화로 농사지를 쫓은이가 없어 걱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환경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농사짓는 방법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처음 의도와는 다른 지금까지 해 왔던 일과는 다른 분야의 공부였지만 농사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갖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생활공동체 그루터기사랑방 김영화 권사

## <주요 정오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270장, 325장

성경 : 사무엘상 3:1~12

말씀 :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중보기도 :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1) 이란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2) 교회개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한공협을 위해)

1) 어려운 길을 가는 공동체들이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2) 공동체들의 사명과 연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1) 꾸러기학교와 어린이학교의 여행을 위해서

2) 뗏쟁이학교 졸업여행을 위해서

## < 생활공동체 소식 >

이제는 정말 가을이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모든 잎사귀를 떨구고 죽은 듯 긴 겨울잠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사용했던 잡초 방지 검은 천들과 비닐들을 제거하고 김장에 사용했던 집기들도 깨끗이 씻어서 정리해두었습니다. 아직 시금치와 파 등 작물들이 조금 남아있지만 그것도 조만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영하로 떨어지다니 열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을 돌아보고 정비하는 일도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 마다 보이지 않게 하나하나 세심히 살피는 식구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노고로 인해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